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19. Vol. 30. No. 4 pp. 5~31.
ISSN 1225-636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19.30.4.5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 부모의 합리적 설명으로 조절된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박선영**·조용주***

초 록

본 연구는 Kohut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의 관계에서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부모의 공감,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가지는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남녀 공학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759명의 자료를 모아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경로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상관분석을 위해 SPSS18.0을 사용하고 경로분석을 위해 Mplus6.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 합리적 설명, 자녀의 자기위로능력, 내현적 자기애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자기위로능력의 관계에서 합리적 설명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공감적 반응과 합리적 설명 두 요인의 조절효과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유의하게 자기위로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공감과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경우 공감적 반응과 합리적 설명 모두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에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왔고, 아버지의 경우 합리적 설명만 내현적 자기애로 가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에게 자녀의 건강한 자기애 발달을 돕는 양육행동을 제시하고,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의 건강한 자기애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감적 정서반응, 합리적 설명, 내현적 자기애, 자기위로능력

---

* 본 연구는 조용주, 박선영(2017)의 후속연구임.
** California Luther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조교수
*** 가톨릭 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교신저자, yjj3141@hanmail.net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또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자기애 발달의 중요한 변환시점이기도 하다(Kohut & Wolf, 1978). 특히 현대사회는 경쟁사회로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며 최고가 되려고 한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도 이러한 경쟁의식을 강조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여 쉽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아주 특별하다고 느끼며 과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면 불안과 우울증상을 보이기도 하고(강지희, 최명선, 2009),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이세연, 2007),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학교생활적응 전반에도 문제를 보인다(김지현, 2013; 배유리, 2016).

자기애는 표현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하고 있다. 외현적 자기애는 DSM에서 묘사된 자기애적 성격장애에 부합되는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표상과 자기 과시가 주된 특징이다. 즉, 타인의 찬사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착취하는 경향이 강하며 열등감과 우울, 소진감 등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우울, 불안, 타인의 반응에 과민한 모습이며 위축되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한다(정남운, 2001). 두 자기애는 타인지향성, 지루함, 착취적인 대인관계, 타인의 비판, 비평에 민감하고 공감이 부족하다(강선희, 정남운, 2002)는 공통점이 있지만, 외현적 자기애는 방어적인 자기고양을 통하여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며 우울하지 않다고 보고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은 높으며,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였다. 그러므로 외현적 자기애보다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불편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자기애에 대하여 Freud(1914)는 일차적 자기애는 리비도가 자아에게 집중되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는 유아기에 보이는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리비도가 자신으로부터 외부대상으로 향하다가 어떤 좌절을 겪게 되면서 대상에게 투여되었던 리비도가 다시 자신에게 향하게 되어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는 상태를 병리적으로 보았으며 이를 이차적 자기애라고 하였다. 이 상태에서는 자기사랑과 자기 과신의 태도, 대상상실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대망상, 이상화, 부인, 투

사, 분리와 같은 방어적 태도,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완벽함에의 추구, 타인에 대한 통제, 특권의식, 타인의 비판을 참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자기애와의 관련을 다룬 Kohut, Kernberg and Millon의 이론이 있다. Kernberg(1975)는 어린 자녀가 주 양육자로부터 거부나 방임, 학대 등의 양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아이는 웅대한 자기상과 이상적인 양육자상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Millon(1981)은 부모가 자녀를 비현실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지나친 애정을 쏟음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특별대우와 거대한 자기상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기애적 성격을 설명하였다.

자기애에 관한 이론들 중 건강한 자기애 발달과 병리적 자기애를 함께 설명한 사람은 Kohut이다. Kohut(1971, 1977)은 유아는 어쩔 수 없이 좌절을 겪고 자신의 전능감과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해 “나는 완벽해”라는 과대자기(grandiose self)와 “부모는 완벽해, 나는 그의 일부이다”라는 이상화된 부모상(idealized parental image)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녀의 자기애적 욕구에 자기대상인 부모가 공감과 적절한 좌절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아이는 변형 내재화(transmuting internalization) 과정을 거쳐 건강한 자기의 두 축인 건강한 야망과 이상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보았다. 변형 내재화란 자녀가 부모의 공감과 적절한 좌절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는 부모와 자신에 대한 이상화를 감소시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건강한 야망과 이상을 가진 응집된 자기, 즉 건강한 자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게 공감적이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좌절을 반복적으로 줄 때 자녀는 변형 내재화 과정을 거칠 수 없고 따라서 과대자기와 이상화된 부모상을 유지하게 되어 병리적인 모습의 자기애 상태가 된다고 보았다.

결국 Kohut(1977)은 부모의 공감과 적절한 좌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건강한 자기애 발달을 돕는다고 보았는데, 부모의 공감은 자녀가 과대자기라는 자기애적 욕구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고 인정해주는 거울반응과 이상화부모 이마고의 자기애적 욕구, 즉 위대하고 강하면서도 자기를 진정시켜주는 대상과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용해주는 반응을 말한다. 즉, 부모인 자기대상의 공감적 반응이 없다면 유아는 전능한 자기대상과의 융합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유아는 공감적 반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공감적

반응이 항상 완벽할 수 없으므로 자녀는 필연적으로 부모의 공감 실패 또는 무반응을 경험하게 된다. 자녀가 겪는 좌절에 대하여 Kohut은 두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아동이 감당할 수 있는 좌절과 감당할 수 없는 좌절이 그것이다. 비록 부모가 좌절을 주기는 하나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때 Kohut은 이를 적절한 좌절(optimal frustration)이라 불렀다(최영민, 2011).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주는 좌절이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먼저 공감적 반응의 경험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홍이화, 2011). 즉 부모의 많은 공감적 반응의 경험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자녀가 심리적으로 견딜만한 좌절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부모가 공감적 반응을 하면서 그 위에 부모의 경미한 수준의 좌절이 주어진다면 유아는 미세-좌절에 따라 점진적으로 미세-내재화가 일어나는 변형적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 부모와 자신에 대한 환상과 과시적 욕구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부모가 자신을 위로해 주던 기능을 내재화함으로써 건강한 자기로 발달할 수 있다(Kohut, 1984).

이러한 Kohut의 이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공감과 내현적 자기애와는 부적상관(조용주, 2010), 자기위로능력과 내현적 자기애와의 부적관련(공세영, 2014; 배재은, 2016)을 검증한 연구가 있었고, 최근 부모의 공감과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있다(조용주, 박선영, 2017). 부모의 공감이 자녀의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적게나마 있었지만 아직 부모의 적절한 좌절을 변인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Kohut의 이론에서 부모의 공감적 태도와 더불어 적절한 좌절 또한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모의 양육태도이므로 이 변인들을 함께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절한 좌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직 없으므로 적절한 좌절을 대신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찾기 위하여 적절한 좌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Kohut(1977)은 적절한 좌절을 자기대상의 외상적이지 않은 공감적 실패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자기대상의 공감적 반응의 어쩔 수 없는 경미한 실패에서 경험되어지는 결과로 자녀의 입장에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견딜만하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였다. 자녀는 부모가 좌절을 주더라도 어떤 경우에 상처받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좌절이 되는 것인가?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때 부모가 사납게 소리치는 것과 부드러운 말로 금지시키는 것은 분

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이의 행동을 제지할 때 타협이나 절충 없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금하는 것과, 금하는 행동대신 받아드릴 만한 대체행동을 제시하는 것의 차이를 예로 들 수 있다(최영민, 2011). 더 나아가 자녀에게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자녀가 합리적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상처받지 않는 적절한 좌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위와 같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는 척도로 허묘연(1999)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척도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설명'을 들 수 있다. 합리적 설명'의 5문항은 '부모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가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지 설명해 주셨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이다. 이와 같이 자녀에게 좌절을 줄 때 부모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요하기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자녀가 그 이유를 납득하고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더라도 그 좌절이 견딜만한 좌절이 되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부모의 합리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수용,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을 본 경험적 연구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통제를 할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임숙빈, 2012), 부모가 자녀에게 합리적 설명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무조건적 자기수용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지은(200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합리적 설명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이 자녀에게 어머니로부터 수용되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받고 이를 지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자아상을 갖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약하면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자녀에게 좌절을 견딜만한 좌절로 받아들이게 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도록 돕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절한 좌절은 부모의 공감적 태도를 전제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과 적절한 좌절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여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의 관계에서 적절한 좌절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부모의 공감과 적절한 좌절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

서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공감과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의 관계에서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2. 부모의 공감과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부모의 공감과 합리적 설명

Kohut(1971, 1977)은 어린아이가 정상적인 발달과정으로서 과대한 자기와 완벽한 부모상을 가진다고 보았다. 부모는 공감적 태도를 가지고 자녀의 과대자기라는 자기애적 욕구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고 인정해주는 거울반응과 이상화부모 이마고의 자기애적 욕구, 즉 위대하고 강하면서도 자기를 진정시켜주는 대상과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공감과 수용은 완벽할 수 없고 자녀에게 좌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때 좌절이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좌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좌절이 결여된 경우와 지나친 좌절을 반복적으로 겪을 때 자녀는 이상화나 웅대한 자기에 더욱 집착하여 응집된 자기로 발달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공감과 함께 필요한 적절한 좌절은 어떤 것인가? 어떤 좌절이 자녀에게 적절한가? 자녀가 큰 상처로 지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해서 가르치고, 어떤 행동은 못하게 해야 할 때가 있다. 부모가 무언가를 못하게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자녀는 그 행동이 왜 안 되는지 받아들인다면 좌절은 견딜만할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규준과 이유를 갖고 있고 이를 자녀에게 설명하는 합리적 설명이라는 요인이 있다(허묘연,

1999).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금지시킬 때 자녀가 지각하기에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느껴 좌절이 견딜만하다면 Kohut의 주장대로 자녀는 건강한 자기애를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본다. 즉 부모의 공감적 태도에 합리적 설명이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부모의 공감적 태도에 합리적 설명이 더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부모의 공감과 합리적 설명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는 있다. 조용주(2010)의 연구에서 부모의 공감과 부모의 합리적 설명의 상관관계를 보면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공감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계를 본 최은정(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공감의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 격려, 합리성, 자율의 하위요인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러므로 공감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좌절을 줄 때에도 비난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자녀가 납득하도록 도와주는 양육태도를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2. 부모의 공감 및 합리적 설명과 자녀의 자기애

부모의 공감과 자녀의 자기애와 관련 연구로는 Trumpeter, Watson, O'leary and Weathington(2008)의 연구, 조용주(2010)의 연구가 있다. Trumpeter 등(2008)은 이전 연구와 달리 직접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여 자녀의 외현적 자기애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자녀의 착취/특권의식 요인에 부와 모의 공감적 관심과 관점수용이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조용주(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과 외현적 자기애 및 내현적 자기애와의 상관을 보았다. 연구결과 부와 모의 공감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에 부적 상관을 보였고, 외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에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 일반 집단 어머니의 공감적 반응이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 집단 어머니의 공감적 정서반응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의 공감적 정서반응이 자녀의 병리적 자기애와 부적상관, 건강한 자기애와 정적상관이 있음을 알려준다.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자녀의 자기애의 관계를 검증한 몇 개의 연구가 있다. 홍영미(2007)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를 보았는

데,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윤혜신(200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 통제적, 비합리적, 비성취적일수록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나영(201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진로미결정에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외에도 모의 양육태도 중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민정숙, 2010)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공감 및 자기조절능력(김문희, 2018), 높은 자아존중감(윤지은, 2003), 또래애착(백은라, 2018)과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자녀의 우울(허묘연, 옥정, 2013; 구희정, 2013; 김은영, 2016), 사회불안(김금주, 2017)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건강한 자기애의 발달을 도우고 병리적 자기애와 부적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부모의 공감 및 합리적 설명과 자녀의 자기위로능력

자기위로능력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가 스스로의 불안한 감정을 달래고,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스스로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하는데 내적 기제에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위로능력이 높으면 스스로를 위로할 뿐 아니라 타인의 위로에도 잘 반응하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능력도 있어 부정적인 감정에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있게 된다(Glassman, 1989; Moser, 1991).

Kohut(1971)은 자녀가 좌절 상황에 있을 때 주 양육자가 공감적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진정되고 달래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 자녀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내면화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은 부모의 반복되는 공감과 적절한 좌절을 경험한 유아가 자신을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주는 부모의 태도를 내재화하는 과정이 아주 점진적으로 미세하게 진행되는 변형 내재화를 통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

부모의 공감과 자녀의 자기위로능력과의 관련을 본 경험적 연구는 조용주와 박선영(2017)의 연구가 있다. 부모 공감과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이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에 따라 부분매개,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과민한

정서반응은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이 내현적 자기애의 모든 하위요인들에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의 관계를 직접 본 연구는 아직 없지만,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을 본 몇 개의 연구가 있다. 연구결과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은 정적상관이 있으며(김윤희, 2008),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은 부적상관(이성애, 2015), 부모의 수용적 태도와 자녀의 자기위로능력도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조수아, 2016)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합리적, 애정, 자율, 성취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조연우,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여아의 정서조절 및 공격성과의 관계를 본 연구(서지영, 2003)에서도 부모가 애정적 합리적인 양육태도로 대할수록 여아는 기능적인 정서조절을 많이 보였다. 허묘연의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한 장소현(2009)의 연구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합리적 설명과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학교생활적응의 상관이 높게 나왔다. 김문희(2016)의 연구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합리적 설명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공감능력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한편 윤영신(200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는 애정, 합리적 설명이 청소년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는 합리적 설명만이 자녀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을 직접 검증한 연구는 없지만 부모의 온정적, 합리적, 합리적 설명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상관이 있으므로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자녀의 자기위로능력도 높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자녀의 자기위로능력과 자기애

자기위로능력과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를 검증한 몇 개의 연구(공세영, 2014; 김혜원, 이지연, 2016; 배재은, 2016; 조용주, 박선영, 2017)에서 자기위로능력과 내현적 자기애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 불안하고 타인의 반응에 과민한 모습이며 위축되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한다(정남운, 2001)는 관점을 지지한 결과이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인 자기평가로 낮은 자존감, 자기의심, 타인의 비판 등에 예민하여 주관적 불편감을 더 많이 겪는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고 보고되었는데 자기위로능력도 불안,

우울, 분노조절, 폭식행동, 관계중독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연구 결과들이(전희정, 1999; 조수아, 2016; 이종헌, 2015; 이성애, 2015) 있어(조용주, 박선영, 2017에서 재인용) 이는 자기위로능력과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외 자기위로능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김슬애, 2014)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자신의 정신건강(기채영, 2008), 삶의 만족(김윤희, 2008), 심리적 안녕감(이영미, 2015; 박희철, 2015), 낙관성(이지연, 민선희, 김미진, 2010),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자각(오미경, 2018)에도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자기위로의 관계에서 합리적 설명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가정하여 그림 1과 같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의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의 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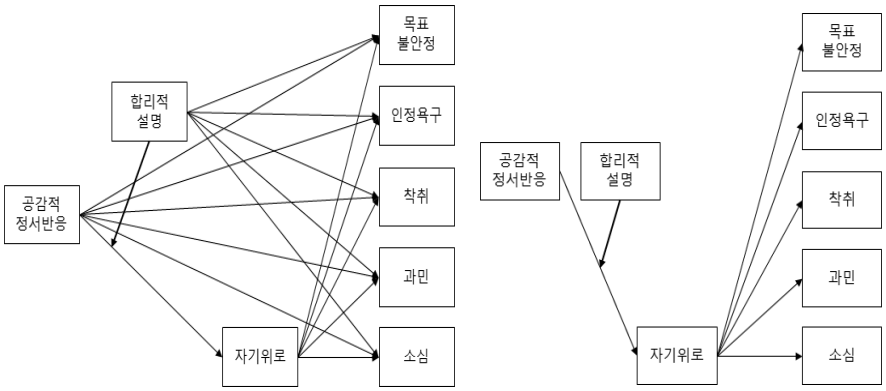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에서 가정한 조절된 부분매개모형(좌)과 완전매개모형(우)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설문을 실시하여 75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자는 남학생이 59%, 여학생이 41%였으며 중학생(51%), 나머지가 고등학생(49%) 이었다. 사용한 척도들은 모두 4점 등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이 전혀 아니다, 4점이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공감적 정서반응

공감적 정서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용주(2010), 박선영, 조용주(2017)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의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 정서반응의 5요인 중 공감적 정서반응만을 사용하였는데 공감적 정서반응은 자녀의 정서를 공유하고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과 염려의 정서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부 .84, 모 .85로 나타났다.

2) 합리적 설명

합리적 설명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묘연(1999)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척도의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치, 학대, 애정 등의 8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설명 요인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규준과 이유를 갖고 있고 이를 일관적이되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부 .87, 모 .86으로 나타났다.

3) 자기위로능력

Glassman(1989)의 자기위로능력 척도를 전희정(1999)이 번안, 타당도 검증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체적으로 위로하기, 회복력, 자기노출, 스스로 위로하기의 4개

의 하위요인 중 스스로 위로하기에 대한 정의가'기분 나쁜 일에 대해 스스로를 달래고 위안하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자기위로능력에 해당하는 요인이라 여겨 이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4) 내현적 자기애

본 연구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목표불안정이 .91(9문항),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이 .83(9문항), 착취/자기중심성이 .82(9문항), 과민/취약성은 .83(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은 .76(8문항), 전체 45문항에 대해서는 .92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졌다.

4. 자료 분석방법

자료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사용하여 조절된 부분매개모형과 조절된 완전매개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모형의 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으며 매개변수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18.0과 Mplus 6.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와부에 대한 응답에 계수값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Cohen, Cohen, West and Aiken(2003)연구에서 제시한 비교검증방법을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Soper, 2018)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값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모와 부 모두 공감적 반응,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과 부적인 상관관계, 자녀의 자기위로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과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이 높은 상관관계(.69)를 가지고 공감적 정서반응 역시 높은 상관관계(.74)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부모의 변수를 한 모형에서 고려할 경우 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성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Hair et al., 2013) 중 하나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형을 따로 분석하고 모형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한다.

표 1

변인 간 상관,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2	.61*									
3	.69*	.50*								
4	.45*	.74*	.64*							
5	.15*	.20*	.17*	.20*						
6	-.26*	-.23*	-.26*	-.23*	-.47*					
7	-.02	-.08*	-.01	-.05	-.46*	.24*				
8	-.14*	-.17*	-.18*	-.21*	-.45*	.27*	.50*			
9	-.21*	-.25*	-.22*	-.25*	-.74*	.50*	.59*	.51*		
10	-.12*	-.13*	-.15*	-.12*	-.48*	.45*	.28*	.28*	.62*	
M	16.8	14.6	16.2	14.4	36.4	20.9	22.9	17.6	22.3	19.2
SD	2.92	3.67	3.12	3.75	8.44	6.41	5.16	4.94	6.05	4.52

주. 1=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2=어머니의 공감적 정서반응, 3=아버지의 합리적 설명, 4=아버지의 공감적 정서반응, 5=자기위로, 6=목표불안정, 7=인정욕구, 8=착취, 9=과민, 10=소심 *p < .05

2.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조절된 부분매개모형(연구모형)과 조절된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에 대해 부와 모의 반응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2에 따르면 부와 모 모두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카이자승 차이값($\triangle x^2$)이 자유도 10에서의 기각값인 18.31보다 컸으며, 모형 적합도에서 연구모형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라 CFI와 TLI는 .90 이상이고, RMSEA는 부 0.05, 모 0.07수준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이다.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 경쟁모형2의 비교 검증 결과

모형	x^2	df	$\triangle x^2$	CFI	TLI	RMSEA
(부) 연구모형	5.66	5		.998	.981	.050
(부) 경쟁모형	489.13	15	483.47	.850	.589	.231
(모) 연구모형	10.21	5		.997	.944	.074
(모) 경쟁모형	278.01	15	267.80	.889	.696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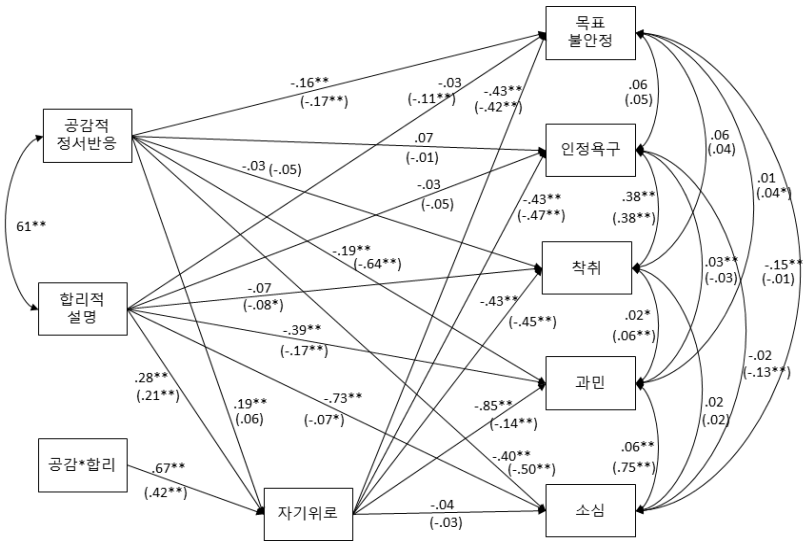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아버지)의 조절된 부분매개모형

주. 결과는 표준화 계수임. *p < .05, **p < .01

그림 2와 표 3에서 최종모형을 바탕으로 모든 경로에 대한 표준화계수와 비표준화 계수 및 부모의 계수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의 경우, 공감적 반응과 합리적 설명 그리고 둘의 조절효과 모두 유의하게 자기위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의 경우 합리적 설명과 두 변수의 조절효과(공감적 정서반응과 합리적 설명)는 유의하게 자기위로에 영향을 끼치지만 공감적 반응은 자기위로에 대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위로는 소심을 제외한 내현적 자기애에 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부모의 공감적 반응이 목표불안정, 과민과 소심에 직접적인 부적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합리적 설명의 경우 부는 목표불안정, 착취, 과민, 소심에 영향을 끼치고 모의 경우 과민과 소심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따르면 부모의 모형에 계수값은 대체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공감적 반응이 자기위로로, 합리적 설명이 과민으로, 자기위로가 과민으로, 합리적 설명이 소심으로 가는 경로는 모의 경우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적 반응이 과민으로 가는 것은 부의 경우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모, 부의 최종 조절된 매개모형의 직접효과 계수 및 계수 비교검증 결과

경로			어머니			아버지			차이 검증 (t 값)
			b	β	SE	b	β	SE	
공감	→	자기위로	0.55	.19**	.17	0.11	.06	.08	2.34*
합리	→	자기위로	0.67	.28**	.18	0.41	.21**	.10	1.26
공감*합리	→	자기위로	0.06	.67**	.01	0.04	.42**	.00	1.41
공감	→	목표불안정	-0.34	-.16**	.09	-0.26	-.17**	.06	0.74
합리	→	목표불안정	-0.05	-.03	.07	-0.15	-.11**	.05	1.16
자기위로	→	목표불안정	-0.32	-.43**	.03	-0.31	-.42**	.02	0.28
공감	→	인정욕구	0.12	.07	.08	-0.01	-.01	.05	1.38
합리	→	인정욕구	-0.04	-.03	.06	-0.06	-.05	.05	0.26
자기위로	→	인정욕구	-0.26	-.43**	.02	-0.28	-.47**	.02	0.71
공감	→	착취	-0.05	-.03	.07	-0.06	-.05	.05	0.12
합리	→	착취	-0.10	-.07	.06	-0.09	-.08*	.04	0.14
자기위로	→	착취	-0.25	-.43**	.02	-0.26	-.45**	.02	0.71

경로			어머니			아버지			차이 검증 (t 값)
			b	β	SE	b	β	SE	
공감	→	과민	-1.75	-.19**	.29	-4.11	-.64**	.21	6.59**
합리	→	과민	-2.95	-.39**	.12	-1.01	-.17**	.20	8.32**
자기위로	→	과민	-9.95	-.85**	.38	-0.44	-.14**	.05	23.87**
공감	→	소심	-9.04	-.40**	.30	-7.83	-.50**	.56	1.90
합리	→	소심	-13.3	-.73**	.97	-1.10	-.07*	.54	10.95**
자기위로	→	소심	-0.31	-.04	.18	-0.20	-.03	.13	0.50

주. b = 비표준화 계수, β = 표준화 계수, *p < .05,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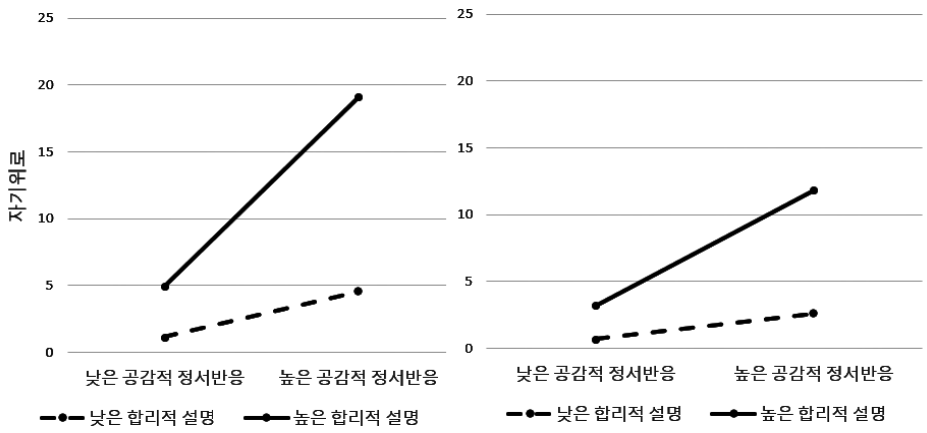

그림 3. 모(좌)와 부(우)의 합리적 설명에 따른 부모의 공감적 반응과 자기위로의 관계

그림 3은 공감적 반응과 합리적 설명의 자기위로에 대한 조절효과를 자세히 알기 위해 두 변수의 수준을 고저로 구분하여 관계를 본 것이다. 공감적 반응과 합리적 설명이 각각 높을 때 낮을 때보다 자녀의 자기위로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공감적 반응과 합리적 설명이 모두 높을 경우는 하나의 요소가 높은 경우보다 자녀의 자기위로는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종모형을 바탕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모형에서 자녀의 자기위로를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Bootstrapping으로 실시하였다. 1,000번의 Bootstrapping

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모의 경우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중 소심을 제외하고 모든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온 반면, 부의 경우 합리적 설명이 자기위로를 거쳐 소심을 제외한 내현적 자기애로 가는 간접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경우는 공감적 정서반응과 합리적 설명이 높아질수록 자기위로가 높아지며 대부분의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부의 경우는 합리적 설명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위로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표 4

최종모형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내 자기위로의 간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어머니		아버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공감 → 자기위로 → 목표불안정	0.17	.08**	0.04	.02
합리 → 자기위로 → 목표불안정	0.21	.12**	0.13	.09**
공감 → 자기위로 → 인정욕구	0.14	.08**	0.03	.03
합리 → 자기위로 → 인정욕구	0.17	.12**	0.12	.10**
공감 → 자기위로 → 착취	0.14	.08**	0.03	.03
합리 → 자기위로 → 착취	0.17	.12**	0.11	.09**
공감 → 자기위로 → 과민	5.47	.58**	0.05	.01
합리 → 자기위로 → 과민	6.62	.89**	0.18	.03**
공감 → 자기위로 → 소심	0.17	.01	0.02	.00
합리 → 자기위로 → 소심	0.21	.01	0.08	.01

주. $*p < .05$, $**p < .01$

Ⅴ. 논의,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Kohut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자기위로의 관계에서 합리적 설명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부모의 공감과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 동일하게 공감적 정서반응과 합리적 설명은 높은 정적상관, 부모의 공감과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은 정적상관, 내현적 자기애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부모의 합리적설명도 자기위로능력은 정적상관,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공감과 내현적 자기애가 부적상관을 나타낸 조용주(201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은 정적상관을 나타낸 김윤희의 연구(2008)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은 부적상관을 나타낸 이성애의 연구(2015), 부모의 수용적 태도와 자녀의 자기위로능력도 정적상관으로 나타난 조수아의 연구(2016)와 일치한다. 또한 공세영(2014), 김혜원과 이지연(2016), 배재은(2016)의 연구에서 자기위로능력과 내현적 자기애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자녀의 정서조절능력, 학교생활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인 장소현(2009)과 부모의 합리적 설명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자기조절능력과, 공감능력과 높은 상관을 보인 김문희(2016)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즉 공감적인 부모는 자녀를 훈육할 때 합리적 설명도 잘 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가 공감적일 때 자녀는 자기위로능력이 커지며 병리적인 자기애와 관련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합리적 설명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자기위로능력이 높으며 병리적 자기애와 관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자기위로의 관계에서 합리적 설명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공감적 반응과 합리적 설명 두 요인의 조절효과가 부와 모 모두 유의하게 자기위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의 경우, 공감적 반응과 합리적 설명, 그리고 둘의 조절효과 모두 유의하게 자기위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의 경우 합리적 설명과 두 변수의 조절효과(공감적 정서반응과 합리적 설명)는 자기위로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감적 정서반응은 자기위로에 대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적 정서반응과 합리적 설명의 자기위로에 대한 조절효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두 변수의 수준을 고저로 구분하여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감적 정서반응과 합리적 설명이 각각 높을 때에도 낮을 때보다 자녀의 자기위로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에 더해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합리적 설명이 모두 높을 경우는 어느 하나의 요소가 높은

경우보다 자녀의 자기위로는 훨씬 높은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공감과 합리적 설명이 더해질 때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의 경우 공감적 반응과 합리적 설명을 함께 할 때 자녀의 자기위로 능력에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ohut이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가 공감적이면서도 자녀에게 좌절을 줄 때 자녀 입장에서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부보다 모의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 공감적 반응과 합리적 설명을 함께 제공할 때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모의 경우, 공감적 반응과 합리적 설명, 둘의 조절효과 모두 유의하게 자기위로에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의 경우 합리적 설명과 두 변수의 조절효과(공감적 반응과 합리적 설명)는 유의하게 자기위로에 영향을 미치나 공감적 정서반응은 자기위로에 대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의 경우 공감적 반응보다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영신(2007)의 연구에서도 모는 애정, 합리적 설명이 청소년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부는 합리적 설명만이 자녀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수국(2013)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을 청소년 자녀가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 불안 등의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공감과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경우 공감적 반응과 합리적 설명 모두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중 소심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요인에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 그에 비해 아버지의 경우 합리적 설명이 자기위로를 거쳐 소심을 제외한 내현적 자기애로 가는 간접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경우는 공감적 정서반응과 합리적 설명이 높아질수록 자기위로가 높아지며 대부분의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아버지의 경우는 합리적 설명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위로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조용주와 박선영(2017)의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공감적 반응이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을 거쳐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지만 합리적 설명이라는 변인이 추가된 이번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공감적 반응은 자녀의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아버지의 공감적 반응은 자녀의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경우 합리적 설명이 추가되어도 여전히 공감적 반응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되고, 아버지의 경우는 공감적 반응보다 합리적 설명의 변인 설명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녀에게 좌절을 줄 때 자녀가 받아드릴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부분이다. 이외에 부모의 공감과 합리적 설명이 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소심만이 자기위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효과만 있고 다른 하위요인들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심 요인은 소심하고 내향적이며 자신감 부족을 나타내는데(강선희, 정남운, 2002), 자기위로능력보다는 부모의 공감과 합리적 설명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Kohut의 이론을 검증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이 부모의 공감, 자기위로능력, 자기애 변인만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Kohut 이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적절한 좌절을 합리적 설명이라는 변인으로 설정하여 부모의 공감과 합리적 설명이 함께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하는지 봄으로써 네 변인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 부모의 공감과 자기위로의 관계에서 합리적 설명이 조절효과가 있었고, 어머니의 경우 공감과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이 매개효과가 있으며, 아버지의 경우 합리적 설명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공감과 적절한 좌절이 자녀의 이상화된 부모상과 거대자기 환상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부모의 위로기능을 내재화하여 스스로 위로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건강한 자기애로 발전하지만, 부모가 공감적이지 않고 심각한 좌절이 반복되면 자녀는 변형 내재화를 거치지 못하고 어린 유아가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과대자기 환상과 이상화의 병리적인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Kohut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건강한 자기애 발달에 합리적 설명이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공감과 합리적 설명이 같이 주어질 때 자기위로능력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며, 특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 자녀의 자기위로능력을 거쳐 자녀의 건강한 자기애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검증됨으로써 자녀의 응집된 자기애 발달을 도우는 양육태도 중 합리적 설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충분히 공감하려고 하지만 늘 완벽하게 공감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내담자에게 좌절을 줄 때 내담자에게 그 좌절이 어떤지 이야기하게 하고 그 마음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런 상담자의 한계를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Kohut(1977)은 실제 상담관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좌절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잘 다루는 것이 치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가 공감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녀에게 좌절을 줄 때에는 그 행동이 왜 안 되는지 잘 설명하여 자녀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ohut(1971, 1977)의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Kohut은 부모의 공감과 적절한 좌절을 통하여 자녀는 자기위로능력이 커지고 이상화가 감소하여 점차 건강한 이상과 야망의 응집된 자기로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검증함에 있어서 '적절한 좌절' 척도가 없으므로 부모가 좌절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자녀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이해한다면 이것이 적절한 좌절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합리적 설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후 적절한 좌절이라는 개념에 더 잘 맞는 척도를 발견하거나 적절한 좌절 척도가 개발된다면 추후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공감, 적절한 좌절, 자기위로능력,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를 보았는데, 이후 본 연구의 변인과 함께 이상화의 감소를 측정한다면 Kohut의 이론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유형 중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사용했다. 임상장면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내담자들이 실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담에서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내담자를 이해하고 돕는데 도움을 얻고자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사용했다. 추후연구에서는 건강한 자기애와의 관계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969-99.

공세영 (2014). **남자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자기위로능력에 미치는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구희정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295-315.

기채영 (2008). 대학생의 자기위로, 자기격려, 자기수용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4), 65-76.

김금주 (2017).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불안수준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문희 (2016).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감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슬애 (2014).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과 공감능력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503-524.

김은영 (2016).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8), 457-473.

김윤희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트레스와 정서경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위로능력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지현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애, 사회적지지, 학교생활 적응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혜원, 이지연 (2016). 여고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고통 감내력,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 상담연구, 24**(1), 173-196. doi:10.35151/kyci.2016.24.1.009

강지희, 최명선 (2009). 부모화 경험이 천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6**(1), 121-138.

민정숙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선영, 조용주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에 대한 타당화: 과민정서반응 하위요인척도 수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24(1), 1-21. doi:10.21509/KJYS.2017.01.24.1.1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박희철 (2015).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유리 (2016). **청소년의 내현적자기애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재은 (2016).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백은라 (2018).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지영 (200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미경 (2018). **부모의 공감과 자기위로능력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지각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영신 (2007).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윤지은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모-자녀 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혜신 (2003).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 정도와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세연 (2007).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성애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관계중독: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수국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부부갈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미 (2015). **대학생의 대상관계수준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자기위로능력과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지연, 민선희, 김미진 (2010). 청소년의 대상관계수준과 낙관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8**(2), 13-22

이종헌 (2015). **가족응집성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위로 능력과 우울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임숙빈 (2012).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소현 (2009).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모양육행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희정 (1999). **청소년의 자기위로 능력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193-216.

조수아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 자기위로능력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연우 (2015).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용주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조용주, 박선영 (2017).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과민정서반응이 자녀의 내현적자기애에 미치는 영향: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10), 83-105. doi:10.21509/KJYS.2017.10.24.10.83

최영민 (2011). **쉽게 쓴 자기심리학.** 서울: 학지사.

최은정 (2015). **부모의 공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 공감 간의 관계: 매개적 양자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허묘연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허묘연, 옥정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3(3), 116-123.

홍나영 (201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영미 (2007).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기질이 외현적·내재적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이화 (2011). **하인즈 코헛의 자기심리학 이야기.**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 doi:10.1002/pmh.172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Freud, S. (1914/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Glassman, E. J. (1989). *Development of a self-report measure of soothing receptivity.* Canada: York Univ.

Hamilton, N. G. (2007).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역.). 서울: 학지사(원저 1988 출간).

Hair, J. F. (2013). *Multivariate Data Analysis:* Pearson New International Edition, 7Eds.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Kohut, H., & Wolf, E. S. (1978). The Disorders of Self and Their Treatment: An Outline (in Essential Paper on Narcissism).

Millon, T. (1981). *Disorders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Moser, M. L. (1991). *Transitional object and their relationship to self-soothing mechanism in latency aged childre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Soper, D. S. (2018).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SlopesCalculator [Software].

Trumpeter, N., Watson, P. J., O'leary, B. J., & Weathington, B. L. (2008). Self-Functioning and Perceived Parenting: Relations of Parental Empathy and Love Inconsistency with Narcissism, Depres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 51-71. doi:10.3200/gntp.169.1.51-71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s' empathic emotional reactions on covert narcissism: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easonable explanation and the mediative effects of soothing ability

Park, Sunyoung* · Jo, Yongju**

This study, based on Kohut's theory, was conducted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s of reasonable explanation to soothing ability as well as the mediative effects of sooth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from parents empathetic emotional responses to children's covert narcissism. Data from a total of 75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collected. Ou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reasonable explanation, soothing ability, parents empathetic emotional responses, and children's covert narcissism.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re are moderated effects of reasonable explanation to soothing ability with the mother as well as the father. Thirdly, there are mediative effects of soothing ability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mpathetic emotional responses to children's covert narcissism.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of how children's positive self-awareness can be improved by parents' reasonable explanation and their self-soothing ability in the context of psychological counseling were discussed.

Key Words: empathic emotional reaction, reasonable explanation, covert narcissism, soothing ability, children's covert narcissism

투고일: 2018. 11. 30, 심사일: 2019. 2. 21, 심사완료일: 2019. 4. 16

* California Lutheran University
** Catholic University